

# 한국어·중국어 인칭대명사의 대응관계\*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점에서 -

沈 成 鎬\*\*

<目 次>

I. 머리말	5. 당신/그대/댁/자네 : 您
II. 두 인칭대명사의 대응관계	6. 그/그녀 : 他/她
1. 나/저 : 我	7. 이분/그분/저분 : 這位/那位
2. 우리/저희 : 我們/咱們	8. 자기/자신/저/당신 : 自己
3. 너 : 你	III. 맺음말
4. 너희(들) : 你們	

## I. 머리말

최근 한류를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현재 중국에 한국어 학과를<sup>1)</sup> 설치한 대학이 250곳(사립대, 전문대 포함)이 된다고 한다.<sup>2)</sup> 그래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다양한 교수법이 연구, 소개, 시

\* 이 연구결과물은 2010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威德大學校 中國語學科 副教授

1) 중국내 학과 이름은 ‘한국어학과’ 또는 ‘조선어학과’이며, 중국 교육부 공식 명칭은 ‘조선어학과’로 되어 있다.  
2) 王梓怡,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년 2월) 참조.

도되고 있다.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 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와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가르치면 쉽고 효율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교사가 양국 언어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초급 단계에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듯하다.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책이나 교사에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학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접하는 외국어와 우리말과의 대응관계는 인칭대명사일 것이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 'I'는 '나', 'you'는 '너/당신', 'he'는 '그', 'she'는 '그녀' 등등 영어와 우리말의 대응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가르치는 선생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이 방법이 편하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대응관계에 문제가 없을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외없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가? 주지하다시피 그들의 대응관계에는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도 마찬가지이다. 두 언어의 인칭대명사는 여러 쌍들이 일견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봐도 그들의 대응관계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대응관계는 상응정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응정도가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두 인칭대명사가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쓰임이나 사용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인에게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말 인칭대명사를 가르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우리말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각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가운데 흔히 대응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쌍들에 대해 상응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인칭대명사를 배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므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대응관계를 기초로 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 II. 두 인칭대명사의 대응관계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힘들다. 다만 여기서는 두 언어의 인칭대명사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 가운데 대응관계로 연결할 수 있는 쌍들을 중심으로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대응표<sup>3)</sup>

인칭	구분	한 국 어		中 國 語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인칭	예사말	나(내)	우리(들)	我	我們/咱們
	낮춤말	저(제)	저희(들)		
2 인칭	예사말	너(네)	너희(들)	你	你們
	높임말	당신/그대/댁/자네	당신들/그대들/댁들/자네들	您	您們
3 인칭	남성	그/그이	그들/그이들	他	他們
	여성	그녀	그녀들	她	她們
	높임말	이분/그분/저분	이분들/그분들/저분들	這位/那位	
재귀 대명사	예사말	자기/자신	자기들/자신들	自己	自己
	낮춤말	저	저희(들)		
	높임말	당신	당신들		

<표 1>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대응쌍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들 가운데 중요한 8가지 대응쌍을 뽑아 논의하고자 한다.

3) 위의 표는 어디까지나 두 인칭대명사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만 정리하였다. 또 중국어의 1인칭과 재귀대명사는 예사말, 낮춤말, 높임말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각 한 덩어리로 취급하였다.

## 1. 나/저 : 我

한국어 ‘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청자에 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로서 주격조사 ‘가’나 보격조사 ‘가’가 붙으면 변이형태 ‘내’가 된다. 이런 경우 중국어에서는 모두 ‘我’를 사용하므로 ‘나 → 我’의 대응관계가 일단 성립한다. 문법적인 면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된다. 한국어 ‘나’와 중국어 ‘我’는 모두 격변화가 없다. 한국어는 조사 ‘-가(는), -의, -를(을)’이 와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되고, 중국어는 어순 즉 놓이는 위치에 따라 격이 결정된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러한 대응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나는 학생이다. → 我是學生.  
 이것은 나의 책이다. → 這是我的書.  
 그는 나를 사랑한다. → 他愛我.

그리고 한국어 ‘저’는 화자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대명사로서 주격조사 ‘가’나 보격조사 ‘가’가 붙으면 ‘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중국어에서는 모두 ‘我’를 사용하므로 ‘저 → 我’의 대응관계도 성립한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 請您告訴我.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 我來介紹一下.  
 저는 과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我想您太言重了.

이로 보면 중국어의 ‘我’는 한국어의 예사말 ‘나’와 낮춤말 ‘저’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我 → 나’ 또는 ‘我 → 저’의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어의 ‘我’의 사용범위가

한국어의 ‘나’ 또는 ‘저’보다 넓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我 → 나 + 저’의 대응관계는 성립하는가? 이 또한 다음과 같은 ‘我’의 특수용법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다음 경우에 ‘我’는 한국어의 복수 ‘우리(들)’의 뜻으로 사용된다.

我方(우리 측), 我校(우리 학교), 我國(우리 나라), 我司(우리 회사), 我家(우리 집), 我軍(우리 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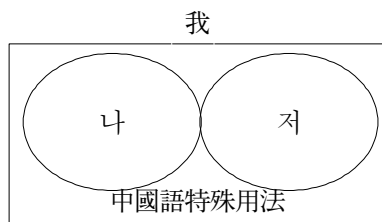
둘째, ‘我’는 ‘你...我...’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서로’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你來我往. (서로 왕래하다.)

你問我, 我問你. (주거나 받거나 서로 질문하다.)

雙方你來我往互相辱罵起來. (쌍방은 서로 주고받으며 욕하기 시작했다.)

이상 두 가지 경우, 중국어의 ‘我’를 한국어에서 ‘나’ 또는 ‘저’로도 번역할 수 없는 특수한 예이다. 이런 예들은 ‘나 + 저’ 밖의 영역에 속한다. 다소 무리할 수 있지만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집합관계로 도식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1> 나/저 : 我的 관계

## 2. 우리/저희 : 我們/咱們

한국어 ‘나’의 복수형으로 ‘우리(들), 우리네(들)’이 있는데, 접미사 ‘-들’이 붙은 것은 중첩형에 불과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용어이다. 또 낮춤말 ‘저’의 복수형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중첩형이고 일반적으로 ‘저희’를 많이 쓴다. ‘나’의 복수형이 단순히 복수표지 접미사 ‘-들, -희’를 붙여서 ‘나들, 나희’로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의 확장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나’의 단순한 확장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우리’는 ‘나’의 확장으로서 화자인 나와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킬 때도 있고,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를 포함하여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와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일 때, 그 청자가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인 경우는 ‘우리’를 사용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경우는 낮춤말 ‘저희’를 사용한다.

①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 : 자신과 청자, 또는 자신과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 내일 경주에 놀러 가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②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 : 청자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일 때

우리 먼저 간다. 천천히 오너라.  
우리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위에서 ①은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②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자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일 때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킨다. 만약 청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일 때는 낮춤말 ‘저희’를 사용해야 한다.

③ ‘우리’의 낮춤말 ‘저희’ :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청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일 때

형님, 부모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댁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상 한국어의 ‘우리(들), 저희(들)’에 대응될 수 있는 중국어는 ‘我們, 咱們’이다. 그런데 ‘我們’은 상황에 따라 화자 쪽만 가리키기도 하고 화자 쪽과 청자 쪽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해, ‘咱們’은 반드시 화자 쪽과 청자 쪽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①의 ‘우리’는 중국어의 ‘我們’과 ‘咱們’이 모두 대응될 수 있고, ②의 ‘우리’는 중국어에서 ‘我們’만 대응되고 ‘咱們’은 대응될 수 없으며, ③의 ‘저희’는 중국어에서 ‘我們’에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我們/咱們

② 우리-我們 (화자)	(청자)
③ 저희-我們	

<그림 2> 우리/저희 : 我們/咱們的 관계

이외 ‘우리’는 특수한 용법으로서, 청자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경우,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는 주로 소유

나 소속관계를 나타낸다.

④ 소유나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이들을 중국어로 나타내면 ‘我媽, 我家, 我鄉, 我校, 我國’의 뜻으로 한국어의 ‘우리’가 중국어의 1인칭 단수 ‘我’로 대응된다. 한국어의 ‘우리’와 중국어의 ‘我們’이 기본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의 이러한 용법은 중국인 학습자를 의아스럽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인 교습이 될 것이다.

언어는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항상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조화되는 개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 규범과 관습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규범과 관습이 언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이 속한 단체를 표현할 때 ‘우리’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엄마...’라는 말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언어 의식에 부합하는 자연스런 표현이고, ‘내 나라, 내 학교, 내 집, 내 엄마...’라는 말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연스런 표현이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유의해야 한다.

3. 너 : 你

한국어의 ‘너’는 청자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대명사이며,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네’란 변이형태

를 취할 뿐 다른 특수용법은 없다. 중국어의 ‘你’는 청자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대명사로 사용하는 일반용법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너’와 같다. 따라서 ‘너 → 你’의 대응관계는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你 → 너’의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你’의 사용범위가 ‘너’보다 넓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어의 ‘你’는 그냥 대화하는 상대를 가리킬 뿐이며,<sup>4)</sup> 한국어의 ‘너’와 같은 사용상의 제약이 별로 없다. 대화하는 상대를 특별히 존대해서 ‘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모두 ‘你’를 사용할 수 있다. 아랫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윗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존대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거나 심지어 잘 모르는 상대에게도 모두 ‘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흔히 보이는 다음 문장은 상대를 별로 가리지 않고 사용된 예들이다.

見到你很高興。  
你是哪國人？  
你住在哪裏？  
真感謝你了。  
如果你願意，你可以保持匿名。  
如果你願意，你有權保持沉默。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윗사람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라면 ‘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교과서에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등처럼 ‘你’를 흔히 ‘당신’으로 번역하고, 국어사전에서도 ‘당신’은 ‘하오할 자리에 쓰이는 2인칭대명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서면어나 고풍스런 말이 되어서 요즘 실체 구어에서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중국어의 ‘你’는 상황에 따라 ‘당신, 자네, 그대, 임자’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2인칭대명사로도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現代漢語規範詞典》: 稱談話的對方(一個人)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와 같이 2인칭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

중국어의 2인칭대명사는 역사적으로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현대 중국어에서 단수의 경우 ‘你’ 또는 ‘您’ 두 가지로 압축되지만 한국어의 2인칭대명사는 나이, 계층, 신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된다. 이 점에 대해 제효봉은 한국사회가 중국사회에 비해 계층적으로 세분화, 서열화되어 있으며, 중국사회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적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한국사회에서 대등한 신분이나 연령 관계에서 ‘너’가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가장 강한 용어이지만<sup>6)</sup> ‘너’의 사용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你 → 너’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너’를 단순히 중국어 ‘你’로 대응시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중국어의 ‘你’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용법도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

① 상대방이 속한 단체를 가리킬 때, ‘너희(당신들)’이란 복수 개념을 나타낸다.

你校(너희 학교), 你鄉(너희 고향), 你國(너희 나라), 你方(너희 쪽)

② 어떤 ‘사람’을 막연히 가리키거나 말하는 사람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는 표현이다.

這句話真叫你哭笑不得. (이 말은 사람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  
他的話真叫你惱火. (그의 말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

5) 제효봉, <화용론적 측면에서 본 중한 2인칭대명사 대비분석>(《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08년), 33쪽.  
6) 송병학, <이인칭 대명사의 의미 분석>(《언어》 제3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2년), 17쪽.

③ ‘你…我…’의 형식으로 쓰여 ‘서로(저마다,제각기)’의 의미를 나타낸다.

你來我往. (서로 왕래하다.)

你問我, 我問你. (주거나 받거나 서로 질문하다.)

#### 4. 너희(들) : 你們

‘너희’는 청자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들이나 청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2인칭대명사이다. ‘너희들’은 ‘너희’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조사 ‘-들’을 덧붙인 형태로써 ‘너희’의 중복형일 뿐, 쓰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반면 중국어의 ‘你們’은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청자와 화자 사이의 신분이나 나이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이 점은 한국어의 ‘너희’와 다르다.

那麼, 你們說一說吧.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

你們的美意我受領了. (여러분의 좋은 뜻은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你們不用客氣了. (여러분은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예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윗사람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你們’을 사용한 경우로써, 한국어에서 마땅한 존칭 2인칭 복수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다. 중국어에서 최근에 ‘您’의 복수형태로 ‘您們’을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您們’이 ‘您’의 복수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邢福義의 《現代漢語》와 徐仲華의 《現代漢語自習教程》에서는 ‘您’의 복수 형태가 ‘你們’이라고 하듯이<sup>7)</sup> ‘你們’이 존칭 상황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이처럼 중국어에서는 청자가 윗사람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你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청자가

7) 왕금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대조연구>(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8), 33쪽.

윗사람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너희(들)’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한국어의 ‘너희(들)’와 중국어의 ‘你們’은 대응될 수 없다.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你 們	
너희	(존칭) 당신들 자네들 여러분 ...

<그림 3> 너희 : 你們의 관계

5. 당신/그대/댁/자네 : 您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您’에 대응되는 존칭 2인칭대명사가 마땅히 없다. 중국어의 ‘您’이 항상 존칭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국어에서 존칭 2인칭대명사로 종종 사용되는 것은 ‘당신, 그대, 댁, 자네’ 등이 있으나 모두 제한적인 경우에 존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로 널리 쓰이고, 책 제목이나 구호, 광고문에 불특정인을 높여주는 말로 종종 쓰인다.

- 여보, 오늘 당신 고생했소. (부부 사이의 대화)
- 여보, 당신도 운동 좀 하시구려. (부부 사이의 대화)
-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 (배상문의 책 제목)
- 대한민국 국군! 당신은 나의 보디가드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 UCC 공모전 구호)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광고)

‘당신’은 이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존칭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사용상 매우 신중을 요하는 말이다. 특히 잘 모르는 상대에게 사용하면 반말이 되며 어떤 경우도 존칭이 될 수 없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대방과 싸울 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보고 당신이야?”처럼 상대방을 지극히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쓰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신’은 존칭으로서 기능이 불안정하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당신’과 ‘您’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응될 수 있다.

다음 ‘그대/댁/자네’ 등은 모두 청자가 친구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2인칭대명사로 사용된다.

그대가 좋으실 대로 하시오.  
 댁은 뉘시오?  
 이번에는 자네가 내시오.

위의 예들은 모두 친구, 아랫사람, 대등한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말이며, 윗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사용하면 크게 실례를 범하게 된다. 존칭으로서 ‘그대, 댁, 자네’ 등은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자네’는 “김 서방, 자네 요즈음 바쁘다면서?”, “자네도 이번에 장가가게.”처럼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거나 결혼한 남자가 처남을 부를 때로 쓸 수 있는 점이 다른 것과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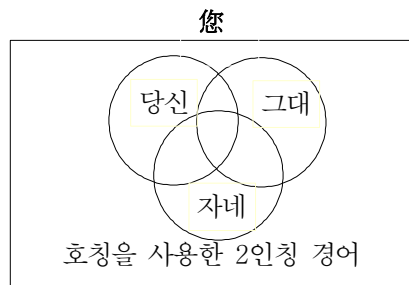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이 ‘당신, 그대, 댁, 자네’ 등은 모두 존칭으로서 윗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윗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는 흔히 상대에게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높임말을 실현하고 있다.

여기가 선생님의 자리입니까?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머니는 어디로 가십니까?  
 아저씨께서 먼저 하시지요.

사모님 댁은 어디십니까?

이상과 같이 한국어의 2인칭 존칭어는 모두 보편성이 없다. 그에 반해 중국어의 ‘您’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나이와 성별, 직위나 처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보편성이 있다.<sup>8)</sup> 그러므로 중국어의 ‘您’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2인칭대명사는 어느 것이나 부분적으로 대응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중국인 학습자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집합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그림 4> 당신/그대/댁/자네 : 您의 관계

또 중국어의 ‘您’을 사용한 문장이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도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존칭 2인칭대명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

您的話很對. → 자네 말이 맞네.

感謝您的厚意. → 당신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您的公子是在大學當教授吧? → 댁의 아드님이 대학 교수로 있지요?

8) 배양서는 적용범위가 좁은 단어를 ‘有標語’, 통용범위가 넓고 보편성이 있는 단어를 ‘無標語’라 하여 구분하였다. 배양서, <2인칭 대명사의 사회학적 의미> (《언어》 제10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77쪽.

B)

您老洪量, 大人不計小人過. → 어르신의 넓은 도량으로 소인의 허물을 용서해주십시오.

爺爺, 您也知道嗎? →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我想勸您買中型車. → 저는 귀하에게 중형차를 살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您的大作已經拜讀過了. → 귀하의 역저는 이미 읽어 보았습니다.

C)

非常感謝您. → 대단히 감사합니다.

給您添麻煩了. →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위에서 A)는 모두 제한적인 상황에서 ‘您’를 각각 ‘자네, 당신, 댁’ 등으로 번역하였고, B)는 ‘您’를 대상에게 적당한 호칭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으며, C)는 ‘您’의 적당한 대응어가 없어서 아예 생략한 경우이다. 이처럼 ‘您’에 대응하는 한국어 인칭대명사는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 6. 그/그녀 : 他/她

한국어의 ‘그’와 중국어의 ‘他’는 모두 화자와 청자가 아닌 제삼의 남성을 가리키는 남성 3인칭대명사이다. 다만 중국어의 ‘他’는 성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이 필요 없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고, ‘你’와 함께 쓰여 막연히 ‘아무 사람’이나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될 수 있는 점이 한국어의 ‘그’와 차이가 난다.

一個人如果沒有朋友, 他的生活將沒有意義. (어떤 사람이든 만약 친구가 없다면, 그의 생활은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你跑, 他跳, 運動場上一片歡騰. (이 사람 저 사람이 뛰고 달리며 운동장은 즐거움이 넘친다.)

그리고 한국어의 ‘그녀’와 중국어의 ‘她’는 모두 화자와 청자가 아닌 제삼의 여성을 가리키는 여성 3인칭대명사이다. 다만 중국어의 ‘她’는 祖國이나 國旗 등 자신이 경애하거나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한국어의 ‘그녀’와 차이가 난다.

中國, 她是我的祖國. (중국, 그것은 나의 조국이다.)

祖國, 她是我永遠的家. (조국, 그것은 나의 영원한 집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에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한국어의 ‘그’와 중국어의 ‘他’는 모두 남성 3인칭대명사로, ‘그녀’와 ‘她’는 모두 여성 3인칭대명사로 널리 사용되는 대응 단어이다. 양국 언어에서 1,2인칭대명사의 사용은 대화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신중과 의식적인 선택이 요구되지만 3인칭의 사용은 대화현장에 제삼자가 없으므로 남성과 여성만 구분하고 제삼자의 나이, 신분, 직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로 지칭하는 듯하다. 어쨌든 양국 언어에서 남성 및 여성 3인칭대명사는 매우 밀접한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의 학습현장에서도 중국어의 몇 가지 예외를 인식시켜 준다면 양자를 바로 대응관계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7. 이분/그분/저분 : 這位/那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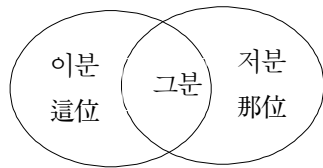
한국어의 ‘이분, 그분, 저분’은 지시어와 의존명사 ‘분’을 결합한 단어이고, 중국어의 ‘這位, 那位’는 지시어와 양사 ‘位’가 결합한 단어이다. 한국어의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연구 과제를 제공하였다.<sup>9)</sup> 마찬가지로 ‘이분, 그분,

9) 박창수, <‘這, 那’와 ‘이, 그, 저’의 대조연구>(《중국어문논역총간》 특집호,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전기정,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중국어문

저분'과 '這位, 那位'의 대응 문제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점에서 고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자의 기본적인 대응관계만 다루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이분'은 중국어의 '這位'에 대응되고, '저분'은 '那位'에 대응되지만 한국어의 '그분'은 중국어에서 마땅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다. 이 점은 중국인 학습자를 가르칠 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한국어의 지시사가 '이'는 근칭, '그'는 중칭, '저'는 원칭을 가리켜서 삼원적 체계를 이루지만, 중국어의 지시사는 '這'는 근칭, '那'는 원칭을 가리켜서 이원적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sup>10)</sup>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기정은 한국어의 지시어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주로 하지만 청자도 고려하는 화-청자 복합시점을 채택하는데 비해, 중국어는 화자 단독 시점을 채택하는 데에서 '이, 그, 저'와 '這, 那'의 지시 관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sup>11)</sup> 이처럼 한중 언어의 지시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분, 그분, 저분'과 중국어의 '這位, 那位'를 일률적으로 대응관계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5> 이분/그분/저분 : 這位/那位的 관계

학논집》 제4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년)

남궁양석, <한·중 지시어 대비에 관한 소고>(《중국학연구》 제29집, 2004년)

백수진, <지시어 '這, 那'의 번역>(《중국조선어문》 제01호, 1998년).

10) 박창수, <'這, 那'와 '이, 그, 저'의 대조연구>(《중국어문논역총간》 특집호), 93쪽.

11) 전기정,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중국어문학논집》 제4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년), 297쪽.

위의 그림에서 ‘이분’은 ‘這位’로, ‘저분’은 ‘那位’로 연결되지만 반대의 경우, ‘這位’는 ‘이분’으로, ‘那位’는 ‘저분’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국어의 ‘這位’ 혹은 ‘那位’가 한국어의 ‘그분’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한중 언어의 지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어에서 지시어 ‘그’는 청자 가까이 있거나 청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또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sup>12)</sup> 다음에서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그분’이 중국어의 ‘這位’로 혹은 ‘那位’로 대응되는 관계를 살펴보자.

①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영역권 밖에 멀리 떨어진 경우, ‘그분’은 ‘那位’에 대응된다.

(전화상에서 B와 함께 있는 김 선생에 대해 말할 때)

A: 그분은 누구시지요? → 那位是誰?

B: 이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 這位是金老師.

(전화상에서 A와 함께 있는 김 선생에 대해 말할 때)

A: 이분은 누구시지요? → 這位是誰?

B: 그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 那位是金老師.

② 화자와 청자가 같은 영역에 가까이 있는 경우, ‘그분’은 ‘這位’에 대응된다.

(같은 장소에서 B가 김 선생과 함께 있을 때)

A: 그분은 누구시지요? → 這位是誰?

B: 이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 這位是金老師.

12) 장경희에 따르면 ‘그’는 청자에 가까이 있으면서 화·청자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張京姬, <指示語 ‘이, 그, 저’의 意味 分析>(《어학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80년), 182쪽.

(같은 장소에서 A가 김 선생과 함께 있을 때)

A: 이분은 누구시지요? → 這位是誰?

B: 그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 這位是金老師.

③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청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경우, ‘그분’은 ‘那位’에 대응된다.

(A, B가 어제 함께 보았던 김 선생에 대해 말할 때)

A: 그분은 누구시지요? → 那位是誰?

B: 그분은 김 선생님입니다. → 那位是金老師.

이상과 같이 한국어의 ‘그분’은 청자와 가까이 있거나 청자가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분히 청자 중심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這位, 那位’는 화자 중심으로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대응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 8. 자기/자신/저/당신 : 自己

한국어에서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 저, 당신’ 등이며, 중국어에서는 ‘自己’가 주로 쓰인다. 한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귀대명사가 4가지나 된다는 것은 각각 그만큼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自己’ 하나만 주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 단어가 두루 사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한국어의 ‘자기, 자신, 저, 당신’은 각각 다른 용도가 있다. 우선 ‘자기, 자신’은 예사말, ‘저’는 낮춤말, ‘당신’은 높임말로 각각 차이가 난다.<sup>13)</sup> 다 같이 예사말로 쓰이는 ‘자기, 자신’도 서로 교체하여 사용되는 일이 많지

13) 허숙자는 ‘자기’는 평칭, ‘저’는 비칭, ‘당신’은 존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허숙자, <國語 再歸代名詞에 대하여>(<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7년), 106쪽.

만 선행 주어에 주격 표지나 한정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나 자신(\*자기)도 몰랐다.  
너 자신(\*자기)을 알라.  
그 자신(\*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렸다.

와 같이 ‘자신’은 쓸 수 있지만 ‘자기’는 쓸 수 없는 것처럼 각기 환경에 따른 사용상 제약이 있다. 그 외 한국어 재귀대명사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을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재귀대명사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와 대응 관계를 밝히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국어 ‘自己’는 어느 경우라도 두루 사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두 언어의 재귀대명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보자.

① 선행 인칭대명사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 自己的事情要自己解決.  
자신의 책임은 자신이 진다. → 自己的責任自己承擔.

② 1,2,3인칭 및 복수를 도로 가리키는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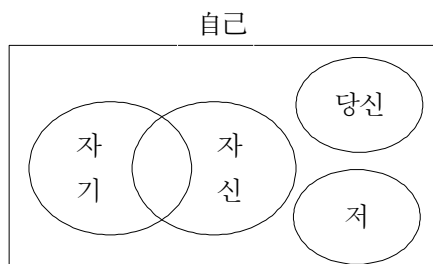
나의 일은 나 자신이 한다. → 我的工作我自己來做.  
너 자신이 반성해 보아라. → 你自己好好反省一下吧.  
그녀는 자기를 잘 보호해야 한다. → 她應該好好地保護自己.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我們要學愛自己.

③ 낮춤말 ‘저’와 ‘自己’, 높임말 ‘당신’과 ‘自己’가 대응되는 예

너는 저밖에 모르는구나. → 你只管自己.  
그는 제 몸만 사린다. → 他只顧惜自己的身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과오를 자인하셨다. → 爺爺承認了自己的錯誤.

이상과 같이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 저, 당신’ 등은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로 대응될 수 있고, 사용되는 문법적인 기능도 비슷하다. 그래서 초급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를 이해시키는 데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6> 한중 재귀대명사의 관계

### Ⅲ. 맺음말

이상 한중 인칭대명사 가운데 흔히 서로 연결되는 쌍들을 가려내어 그들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들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혹은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재에서 흔히 대응어로 연결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대응관계를 이룰 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양국 1,2인칭대명사를 대응시킬 때 신중을 요한다. 양국 1,2인칭대명사에서 한국어는 나이, 신분, 계층, 상황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반면, 중국어는 ‘我們’과 ‘咱們’, ‘你’와 ‘您’의 구분 외는 나이, 신분, 계층에 따른 사용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양국

의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언어 관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를 배울 때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교사도 가르칠 때 양국 언어의 관습 차이와 대응어의 불일치에 대해 잘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3인칭대명사 ‘그/그녀’와 ‘他/她’는 가장 밀접한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3인칭 존칭어로 사용되는 ‘이분/그분/저분’과 ‘這位/那位’는 지시사의 불일치로 인해 대응관계가 복잡하다. ‘그분’은 상황에 따라 혹은 ‘這位’, 혹은 ‘那位’로 대응되므로 중국인 학습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나이, 신분, 계층에 따라 ‘자기/자신/저/당신’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되지만 여기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대개 ‘自己’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

한중 인칭대명사의 대응어로 인식되고 있는 쌍들이 실제 대응관계가 많은 경우 제한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 단계의 교습에서 대응관계에 의한 설명이 인식의 용이함 때문에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대응관계로 설명하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줘야 정확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실제 수업현장에서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집합관계의 의한 도식이 효과적이었다.

#### <參考文獻>

- 王梓怡,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2.  
 김성남, <국어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7.  
 왕금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대조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 논문, 2007.8.
- 선광용,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경어법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8.
- 제효봉, <화용론적 측면에서 본 중한 2인칭대명사 대비분석>,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8.
- 송병학, <이인칭 대명사의 의미 분석>, 《언어》 제3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2.
- 배양서, <2인칭 대명사의 사회학적 의미>, 《언어》 제10호,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 박창수, <‘這, 那’와 ‘이, 그, 저’의 대조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특집호,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 전기정,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지시 관계 비교>, 《중국어문학논집》 제49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남궁양석, <한·중 지시어 대비에 관한 소고>, 《중국학연구》 제29집, 2004.
- 백수진, <중한 텍스트결속성 비교와 번역>,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2004.
- 張京姬, <指示語 ‘이, 그, 저’의 意味 分析>, 《어학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980.
- 허숙자, <國語 再歸代名詞에 대하여>,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7.
- 박상령, <漢語口語中的‘您們’用法>, 《호남대학교논문집》, 2000.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
- 高名凱, 《漢語語法論》, 商務印書館, 1986.
- 竟成, <簡論漢語人稱代詞>, 《古漢語研究》, 1996.
- 俞理明, <漢語人稱代詞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1999.

## &lt;中文提要&gt;

本文是對韓中人稱代名詞中相關的幾對詞的對應關係作了論述。無論是在以中國人爲對象的韓國語教材中，還是以韓國人爲對象的中國語教材中，這些詞都經常以對應關係出現。但正如本文所述：在某些情況下，這些詞構不成對應關係，或是在某種特定的情況下才能構成對應關係。

特別是第1、2人稱對應詞不一致的情況比較常見。這是由於在韓國語中，人稱代名詞是隨着年齡、身份、階層、情況的變化而區分使用的，而在中國語中，除了‘我們’和‘咱們’、‘你’和‘您’區分使用以外，人稱代名詞不隨着年齡、身份、階層的變化而變。從根本上，可以說是兩國社會、文化的差異影響到語言習慣的而造成的結果。因此中國人在學習韓國語人稱代名詞時，要注意理解韓國社會、文化的特性；老師在教學中要注意說明兩國語言習慣的差異及對應詞不一致的現象。

第3人稱代名詞 ‘그/그녀’和‘他/她’的對應關係最爲密切。但是用爲第3人稱敬語的‘이분/그분/저분’和‘這位/那位’，因指示詞的不一致，導致對應關係較爲複雜。根據情況，‘그분’既可和‘這位’，又可和‘那位’相對應。因此學習韓國語的中國人要特別注意。還有韓國語中的反身代名詞根據年齡、身份、階層的不同而區分使用爲‘자기/자신/저/당신’等等，與此相對應的中國語大致可統一爲‘自己’一個詞。

주제어：人稱代名詞，對應關係，對應語，相應程度